

10일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패션쇼 '한복판' 개최

전주 관문서 '한복의 미' 과시

시, 대표 한복모델 선발대회도 병행... 관람객 체험부스 등도 설치

전주시가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 한복 런웨이가 펼쳐진다.

시와 문화예술진흥 민간단체인 청춘맞장구, 청년마을은 오는 10일 첫마중길에서 한복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인 '2017 첫 마중길 한복판'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통한복의 멋과 신한복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는 화려한 한복패션쇼가 진행되고, 한복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릴 대한민국 대표 한복모델을 선발하는 대회도 열린다.

또한, 관람객이 한복을 직접 입어 볼 수 있는 한복체험부스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한복포토존 등도 설치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풍물패 길놀이와 어르신 포도대, 한복 서포터즈, 한복을 입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거리 대행진 등 다채로운 한복진흥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사가 진행되는 전주역에서 명주골사거리까지 백제대로 약 850m 구간 첫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시, 콘크리트보다는 생애의 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 시민의 길이자,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한 길로 지난날부터 기차를 타고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첫마중길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복 관련 문화행사가 열리게 되면서, 첫마중길을 자동차를 위한 도로에서 사람으로 가득한 광장과 거리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향후에도 첫마중길을 다양한 문화행사로 채워 전주의 관문을 사람과 생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했으며, '한복의 날'을 운

영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해왔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경기전 관광료 감면계획'을 수립해 한복을 착용한 관람객에게는 경기전 관람료의 50%를 할인해주고, 지난해 11월에는 대한민국 한복패션 중심지인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에서 최초의 거리패션쇼도 열기도 했다.

시는 한복 활성화와 생활 속 한복 입기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한복 관련 문화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는 한옥, 한지, 소리 등 전통문화자원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전주가 한복 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복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첫마중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성공적인 행사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유라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완주인재스쿨 강사 인건비 과다 책정 지원예산 빼돌리기

완주 교육계 비리 '수면 위'

완주인재육성재단 전 사무국장이 논란의 중심 전 사무국장, 검찰서 혐의 사실 적극 부인

완주군인재스쿨 부실 운영을 통해 감춰졌던 완주지역 교육계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전 사무국장인 A씨가 있는 모양새다. A씨는 완주 교육계 큰손으로 현재 뇌물수수상과 성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4월 말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필리핀에서 여행사 가이드를 통해 성매

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완주군인재스쿨을 2015년부터 2년 동안 맡아온 B학원 대표 C(51)씨와 직원 D(47)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C씨 등은 인재스쿨 강사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완주군 지원 예산 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완주군인재스쿨은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위탁 사업이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근 기자

주택리폼 교육 참가자 모집

전주시가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에 거주민들이 스스로 간단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리폼(집수리) 교육에 참여할 시민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주택리폼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북동 주민센터와 인후2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진행되며, 주택의 간단한 수리,수선과 누수,정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직접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정리수납, 도배도색, 전기, 목공 DIY 분야 등으로, 경력 20년 이상인 집수리 동네 기술자들이 강사로 초청돼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주택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심 있는 단독주택 거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해피하우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박선이 덕진구청장

폭염대비 경로당 안전점검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2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때 이른 폭염에 대비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당부했다.

덕진구는 관내 관공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214개소에 무더운 시간대에 외출했을 경우 잠시 더위를 식혔다 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에 현장관리관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냉방기 가동 여부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비치, 무더위쉼터 표지 부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관내 시설을 파악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더위쉼터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사고서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지역 대학생·시민 참여 확대

조선왕조실록 습기와 충해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비랍에 말리는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가 대한민국 전통문화수도 전주에서 재현됐다.

전주시는 지난 3일 한옥마을 일원과 경기전 내 전주사고에서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를 진행했다. 전주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도시로서,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실록 포쇄행사를 재현한 후 해마다 이 행사를 열어오고 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행사는 임금으로부터 포쇄의 명을 받고 한양에서 내려오는 사관행렬의 행렬로 시작됐다.

올해 사관행렬은 은행로와 최명희길, 한지길을 거쳐 태조로를 통해 경기전 내 전주사고로 향했으며, 주말을 맞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어 전주사고에서는 올해 조선왕조실록의 포쇄를 기록을 남기는 기념식이 진행됐으며, 전주부윤이 임금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관을 맞이하는 영접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포쇄가 재현됐다.

특히, 올해 포쇄 재현에는 취타대 등으로 지역 대학생과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포쇄를 주제로 한 창작 판소리와 무용 공연이 더해져 눈길을 끌었다.

시는 실록 포쇄 재현행사를 통해 문화의 도시 전주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실록 포쇄를 전주를 대표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로 만들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이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의 고장 전주의 대표 역사문화콘텐츠가 되고 있다"며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조선왕조실록 포쇄와 기록문화도시 전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검찰,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 의혹' 수사 박차

도내 광역·기초의원들의 이른바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 2일 오전 전북도의회 운영수석 전문위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문위원 사무실 소속 공무원이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부터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를 제 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강영수 전 전북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 내 속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특정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1인당 일정액을 배분해온 사업예산을 말한다.

/김민근 기자

'호국의 후예' 보존처 공모 선정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하는 청소년보훈캠프 '호국의 후예(禮)'가 국가보훈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호국의 후예(禮)'는 오는 10월까지 전주시에 중, 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안보교육과 호국역사캠프, 리피 교육 등 2차례의 교육을 진행하고, 2일 캠프도 진행된다.

특히, 1박 2일간의 캠프에서는 안보현장을 쉽게 방문하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관문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